2025년도 36회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 총평 - 손병익 회계사

0. 한줄평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문제 버리고 반드시 맞춰야할 문제들을 맞추면 합격을 넘어 고득점도 가능한 수준의 시험문제였습니다.

1. 미시 경제학

올해 미시 경제학은 중요한 단원에 집중하여 출제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미시 경제학을 크게 소비자이론(전반부)과 생산자 이론(후반부)으로 나누어 보자면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이론 : 현시선호 이론, 불확실성하의 선택이론등과 같은 작은 주제보다 굵직한 주 제인 무차별 곡선 및 탄력성 등에서 집중 출제되었습니다.
- 생산자 이론 :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같은 시장이론에서 집중 출제 되었고, 수업시간에 제시한 계산의 틀을 잘 활용하였다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미시 경제학의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했다면 난이도가 아주 어렵거나 처음보는 주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말문제와 계산문제 비중은 기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각각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말문제

- (1) 출제 범위 : 위 내용 참조 기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2) 난이도 : 기존 기출 대비 평이하였습니다. 42번 실물 부존과 같이 처음 들어보는 문제가 있지만 합격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3) 총평 : 기출문제에 기반하여 이론을 이해한 수험생에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1-2. 계산문제

- (1) 출제범위 : 위 내용 참조 기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2) 난이도 : 계산 자체의 난이도 역시 높지 않고, 기존의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의 틀을 외우기 보다는 수업시간에 제시한 계산문제의 접근 원리(기업의이윤 극대화 원리)를 이해한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 (3) 총평 : 기존 기출 수준 대비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 거시 경제학

출제 범위는 기존 기출 문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까다로운 계산 문제가 있었으나 합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이론의 내용 보다는 거시경 제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해야 접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 에 항상 강조한 것처럼 거시경제학의 큰 틀과 흐름에 입각하여 이해하신 수험생이라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말문제

- (1) 출제 범위 : 통화정책, 소비함수, IS-LM 등 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2) 난이도 : 기존 기출 대비 평이하였습니다.
- (3) 총평 : 기출문제에 기반하여 이론을 이해한 수험생에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습니다.

2-2. 계산문제

- (1) 출제범위: 국민소득 항등식, 승수효과, IS-LM, 솔로우 균제상태 등 기존 기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산식도 기존에 출제되던 공식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나(77, 79번 등) 합격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2) 난이도 : 계산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 (3) 총평 : 기존 출제 경향 대비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3. 마무리 및 앞으로의 학습방향

전체적으로 미시 경제학의 난이도는 최근의 출제 경향 대비 평이한 수준이었고, 전년도(35회) 대비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없으며 기존의 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거시 경제학의 경우 일부 까다로운 계산 문제를 제외하면 평이한 말문제 및 계산문제가 출제되어 지난 10년간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험을 보았다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출제기관이 매년 제시하는 공부 방향의 이정표입니다. 매년 마다 강조하지만 기출 문제 분석이 항상 우리 시험의 시작과 끝입니다.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혹은 처음 보는 문제는 항상 존재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넘기고 항상 나오고, 정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합격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한된 자원인 시험시간을 이용하여 최대의 점수를 얻어내는 시험 전략이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시험이 끝난 후 많은 수험생 분들이 이러한 전략 덕분에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강사의 방법론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수험생 분들입니다. 올해에도 저의 방법론을 완성시켜주 신 수험생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